

“명품 수비는 집중력과 편안함서 나온다”

시즌 준비 예열 마친 KIA ‘모범 FA’ 이범호 선수

‘모범 FA’ 이범호가 말하는 ‘모범 수비’의 비결은 집중력이다.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이범호는 지난 2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를 통해 뒤늦게 시범경기에 모습을 드러냈다. 캠프 막바지 허벅지 부위가 좋지 않았던 탓에 차분하게 시즌 준비에 나선 것이다.

오랜만에 실전에 나섰지만 이범호의 안정감은 여전했다. 첫 경기에서 안타를 신고했던 이범호는 22일에도 안타를 더했다. 23일 한화 원정에서 7회 2사 만루에서 대타로 나와 우익수 플라이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이범호의 이야기대로 지금은 서서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려와 달리 수비의 안정감도 눈에 띄었다. 어려운 바운드의 타구에 대한 빠른 판단과 부드러운면서도 매서운 송구는 ‘역시 이범호’라는 말이 나오게 했다. 시범경기 특성상 수비가 불안한 어린 선수들이 경험상 쌓고 있는 터라 더 빛난 이범호의 수비다.

이범호는 “집중력”을 말한다.

이범호는 “바운드 맞추는 것은 감이 있어야 한다. 공이 오는 것을 눈으로 쫓으면서 각도를 잘 봐야 한다. 수비할 때 공이 무조건 나에게 온다는 생각으로 공 하나하루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수비는 다음이 없다. 타격은 나의 것이지만 수비는 남의 것이기도 하다. 내가 실수를 하면 (투수에

시범경기 3경기 출전 안정감

“올해도 무조건 밥값 하겠다”

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많은 경험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한 타구 판단 능력도 뛰어나지만 안정적이고 정확한 송구는 이범호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다. 가볍게 공을 뿌리는 것 같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1루수 미트로 공이 빨려 들어간다. 특급 송구의 이범호지만 그도 어린 시절에는 황당한 송구 실수로 고개를 숙인 날이 많았다.

그는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했었다. 잘못 던지면 어떻게 하지? 감독님과 코치님이 어떻게 보실까? 팬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 단순히 1루만 보고 던지면 됐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많았다”며 “후배들도 이런저런 걱정과 생각을 하지 말고 1루만 보고 편안하게 던지면 좋겠다”고 베테랑의 노하우를 알려주었다.

지난 시즌 그는 138경기에 나와 0.310의 타율로 33홈런 108타점의 성적을 내며 처음 ‘3할·30홈런·100타점’의 기록을 썼다. 3년 연속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끌기도 하는 등 그라운드 안팎에서 좋은 모습을 보



KIA 이범호(오른쪽)가 23일 한화생명아리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시범경기에서 앞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이며 ‘모범 FA’의 대명사가 됐다.

올 시즌도 이범호는 “무조건 밥값은 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인다.

이범호는 “남은 시범경기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부상이다. 144경기를 뛰어야 하니까 부상 없이 준비를 잘해야한

다. 아프지만 않으면 수비는 공격이든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은 선수들이 타이밍을 맞추는 데 집중하는 시기다. 준비 잘해서 좋은 시즌 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7K 위력투’ 양현종 선발 리허설 ‘이상무’

한화전 4.1이닝 호투

KIA, 3대6 역전패

KIA 양현종의 2017시즌 리허설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이 23일 한화생명아리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시범경기에서 4.1이닝 4피안타 3실점(2자책)을 기록했다. 볼넷을 하나 내줬지만 탈삼진은 7개를 수확하는 등 시범경기 처음이자 마지막 선발 등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차출로 뒤늦게 팀에 합류한 양현종의 시범경기 첫 등판은 지난 18일 SK 와이번스전. 허벅지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온 양현종은 2이닝(44구)을 소화하며 몸을 풀었다.

이날은 선발로 4.1이닝 동안 81개의 공을 점검하면서 시즌 준비에 속도를 냈다. 중견수 플라이로 경기를 연 양현종은 2번 하주석에 유격수 앞 내야 안타에 이어 도루까지 허용했지만 김주현을 좌익수 뜬공, 로사리오를 스탠딩 삼진으로 처리하며 1회를 끝냈다.

1·0으로 앞선 2회에는 실책과 위기관리 능력을 동시에 보여줬다. 선두타자 장민석에게 좌전안타를 내준 양현종은 신성현

을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최진행의 투수 앞 땅볼 때 2루에 악송구했다. 1사 1·2루 위기를 자초한 양현종은 조인성을 3구 삼진으로 처리했다. 강경하의 승부도 헛스윙 삼진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포수 이흥구가 공을 놓친 뒤 악송구를 하면서 스트라이크 아웃 상황에서 3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연속된 실책으로 실점은 했지만 김원석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추가 실점은 없었다.

3·1로 앞선 3회 양현종이 다시 선두타자로 나온 하주석에 중전안타와 도루를 허용, 2루를 내줬다. 이어 김주현의 유격수 땅볼과 로사리오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두 번째 실점을 했다.

4회 첫 볼넷을 내줬지만 탈삼진 두 개를 던진 양현종은 5회도 헛스윙 삼진으로 열었다. 그러나 하주석과의 승부가 아쉬웠다. 양현종은 세 번째 대결에서도 우익수 쪽 2루타를 내주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마운드를 넘겨받은 고효준이 삼진으로 두 아웃을 만들었지만 로사리오에 투런포를 맞으면서 양현종의 실점이 늘었다.

KIA는 8회에도 신인 박진태가 조인성에 투런포를 맞는 등 3·6 역전패를 기록했다.

경기는 했지만 타석에서 이인행의 활약이 돋보였다. 2회 2사에서 우중간을 가르



KIA 양현종이 23일 한화생명아리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역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3루타로 출루한 이인행은 이준호의 안타 때 홈을 밟으며 이날 경기의 첫 득점을 올렸다. 3회 2사 만루에서는 2타점 적시타도 기록했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한

화의 ‘특급 외국인 투수’ 오간도를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날리기도 했던 이인행은 다시 한번 한화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번엔 결승 홈런…황재균 벌써 4호포

ML 시범경기 밀워키전…추신수·김현수 1안타씩

메이저리그 도전자 황재균(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시범경기 4호 홈런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황재균은 23일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단 한 번 타석에 들어서 역전 결승 홈런을 터트렸다.

황재균은 3·4로 뒤진 6회말 수비 때 애런 힐을 대신해 3루수로 교체 출전했다. 황재균이 첫 타석에 들어오기 직전인 7회초 팀 페데로비치가 적시 2루타로 4·4 동점을 맞췄다.

황재균은 2사 2루에서 밀워키 우완투수 카를로스 토레스의 공을 오른쪽 담장 뒤로 넘기며 점수를 6·4로 뒤집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 점수를 그대로 지키며 승리했다.

황재균의 시범경기 성적은 타율 0.324(34타수 11안타) 4홈런, 10타점이다.

추신수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 텍사스의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2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 1도루 1삼진을 기록했다.

1회초 추신수는 볼넷을 골라 나가 텔리노 드실즈와 무사 1·2루를 만들었고, 터블 스틸에 성공해 시범경기 첫 도루를 만들었다. 추신수는 3·3으로 맞선 2회초 1사 1·2루에서는 우전 안타를 기록했다. 5·3으로 앞선 4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루킹 삼진으로 돌아섰다. 텍사스는 7·4로 승리했다.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는 탬파베이 레이스와 시범경기 7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 2타수 1안타 1타점 1볼넷 1삼진을 기록했다.

이날 김현수가 공략한 투수는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미국 대표팀 선발로 출전, 호투를 펼친 우완 크리스 아처였다.

김현수는 0·2로 밀린 2회말 2사 3루에서 1타점 좌전타를 뽑아냈다. 3·2로 역전한 4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볼넷을 골라냈다. 후속타 불발로 홈에 들어오지는 못했다. 볼티모어는 7·4로 역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장하나 “첫 메이저 ANA 우승하고 싶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시즌 첫 승리를 신고한 장하나가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칼즈바드의 아비아라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기아 클래식에 출전하는 장 하나는 23일(한국시간) 기자 회견에서 시즌 첫 메이저대회에 대한 목표를 묻는 말에 대해 “우승한 뒤 18번 홀의 호수에서 수영하고 싶다”고 답했다.

1983년 LPGA투어 메이저대회가 된 이 ANA 인스퍼레이션은 우승자가 18번홀 그린 옆 ‘숙녀의 호수’에 뛰어든다. /연합뉴스

세리머니가 전통이다. 장하나도 호수의 뛰어드는 세리머니를 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장 하나는 “흥분이 되기는 하지만 평소와 너무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코스와 대회 자체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밴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에서 21언더파로 공동 5위에 오른 장 하나는 현재 컨디션과 관련해선 “마지막 라운드에서 9언더파를 쳤고, 2라운드에선 홈인원을 기록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연합뉴스

김경태, 지난해 마스터스 우승 대니 윌렛 꺾어

월드골프챔피언십 텔 매치

일본 무대에서 활약하는 김경태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텔 매치 플레이에서 이번을 연출했다.

김경태는 2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세계 랭킹 15위 대니 윌렛(잉글랜드)을 4홀 차로 꺾었다.

윌렛은 지난해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선수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성적은 좋지 않지만, 유럽투어에서 통산 5승을 거둔 강호다. 그러나 이런 윌렛을 상대로 세계랭킹 70위인 김경태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김경태는 1번홀(파4)과 2번홀(파4)을 파로 돌아오하면서 연속 보기를

범한 윌렛을 2홀 차로 앞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윌렛을 상대로 세계랭킹 70위인 김경태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김경태는 1번홀(파4)과 2번홀(파4)을 파로 돌아오하면서 연속 보기를 범한 윌렛을 2홀 차로 앞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윌렛을 상대로 세계랭킹 70위인 김경태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김경태는 1번홀(파4)과 2번홀(파4)을 파로 돌아오하면서 연속 보기를 범한 윌렛을 2홀 차로 앞서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판 추격을 시작했지만, 15번홀(파4)과 16번홀(파5)에서 잇따라 보기를 범하면서 파로 돌아오한 김경태에게 패배했다. 이 대회는 매치플레이로 진행된다.

64명의 선수가 출전해 4명씩 1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위가 16강에 진출, 이후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김경태는 윌렛에 이어 세계랭킹 21위 라셀 녹스(스코틀랜드), 세계랭킹 41위 빌 하스(미국)와 맞붙는다. 모두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러나 김경태가 조 선두로 16강 진출에 성공한다면 연명의는 세계무대 진출에도 확실한 정검다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국 선수들은 김경태를 제외하곤 승점을 얻지 못했다. 안병훈은 샬 슈워츠(남아공)에게 6홀 차로 완패했고, 김시우는 베테랑 필 미컬슨의 벽을 넘지 못하고 5홀 차로 무릎을 꿇었다. /연합뉴스



미국대표팀 선수들이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WBC 결승전에서 푸에르토리코를 8·0으로 꺾은 뒤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WBC 첫 우승…‘야구 종가’ 자존심 세웠다

4번째 도전만에…결승전 푸에르토리코 8-0 제압

미국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우승 속편을 풀었다.

미국은 2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WBC 결승전에서 푸에르토리코를 8·0으로 눌렀다. 2006년 1회 대회 8강, 2009년 2회 대회 4강, 2013년 3회 대회 8강에 그쳤던 미국은 4번째 도전에서 야구 종가의 자존심을 세웠다.

이번 대회에서도 출발은 험겨웠다.

1라운드 첫 경기에서 콜롬비아를 만나 연장 10회 끝까지 안타로 3·2, 신승을 거뒀고 도미니카공화국과 2차전에서는 5·7로 패해 탈락 위기까지 몰렸다. 미국은 1라운드 3차전에서 캐나다에 8·0 완승을 거두며 2라운드 진출을 확정했다.

2라운드에서도 베네수엘라를 꺾었지만

푸에르토리코에 5·6으로 패해 2013 WBC 우승팀 도미니카공화국과 준결승 진출을 놓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펼쳤다.

미국은 경기를 치를수록 강해졌다. 도미니카공화국을 6·3으로 누르고 조2위로 준결승에 진출한 미국은 일본을 2·1로 누르고 WBC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상대는 이번 WBC에서 7전 전승을 거둔 푸에르토리코였다.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미국은 가장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

미국은 3회초 조너선 루크로이의 중전 안타로 무사 1루 기회를 잡고, 이안 킨슬러가 푸에르토리코 선발 마이크 아벌레스의 148km 직구를 공략해 중월 선제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5회초 무사 1·2루에서는 크리스티안 엘라치의 우전 적시타로 추가점

을 뽑고 이어진 2사 1·3루에서는 앤드루 매커전의 내야 안타로 또 한 점을 얻었다.

미국은 7회초 3점을 뽑으며 승부에 쐈기를 받았다. 2사 만루에서 브랜던 크로퍼드가 2타점 중전 적시타를 쳤고, 장칼로스 탠턴이 좌전 적시타로 한 점을 보태 7·0으로 달아났다. 8회 2사 1·3루에서는 매커전의 내야안타로 추가점도 냈다.

미국 선발 마커스 스트로먼은 6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2라운드 푸에르토리코와 경기에서도 선발 등판해 4.2이닝 4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던 스트로먼은 이날 완벽한 실용을 했다. 키 1m73cm의 ‘작은 거인’ 스트로먼의 구위에 놀린 푸에르토리코 타선은 7회까지 무안타로 침묵했다.

2013년 WBC 결승전에서 도미니카공화국에 패했던 푸에르토리코는 이번에도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2회 연속 준우승에 그쳤다. /연합뉴스